

빙하에서 85년 만에 찾은 탐험가 카메라

캐나다 유콘 지역 빙하에서 무려 85년 동안이나 빙하 속에서 잠자던 카메라 장비가 최근 탐사팀의 노력으로 회수됐다.

사연은 지난 1937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항공 사진의 개척자인 미국 산악인 브래드포드 워시번과 로버트 베이츠는 유콘 지역 탐사 도중 월시 빙하 인근에 베이스캠프를 차렸다. 이후 두 사람은 악천후로 인해 무거운 카메라 등을 놓고 당초 예정했던 투카니아 산 등정에 나서 정상에 올랐으나 다시 베이스캠프 쪽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사망하면서 카메라 장비는 빙하 속에 묻히고 말았다.

그러나 지난 2020년 전문 산악 스키선수인 그리



▲ 한 탐사팀의 노력으로 1937년 캐나다 빙하 위에 버려진 카메라가 85년 만에 발견됐다. 사진=sciencealert.com

핀 포스트가 당시 잊어버린 카메라에 얹힌 사연을 접하고 카메라를 찾아 나섰다. 포스트는 당시 워시번이 촬영한 사진을 모두 뒤져 배경이 된 산과 현재의 지형을 하나하나 비교 분석했다. 또한 80여 년 동안의 빙하 이동을 계산하기 위해 캐나다 오타와 대학 빙하학자까지 함께 연구에 착수해 카메라가 있을 만한 장소를

지도로 만들었다. 탐사팀은 도보, 스키 등으로 수십 km를 이동하며 예상 위치를 하나하나 짚어갔고 결국 85년 전 워시번이 두고 온 지점에서 약 22km 떨어진 눈 속에서 카메라를 발견했다.

2대의 카메라에는 당시 빙하의 풍경이 필름에 담겨있으며 현재 이를 복구 중에 있다.

'유성' 맞아 전소된 집



▲ 캘리포니아 북부 네바다 카운티의 한 주택이 유성으로 인한 화재 발생으로 전소됐다(위). 유성이 떨어지는 모습이 촬영된 동영상(아래). 사진=nbcbsandiego.com

캘리포니아 북부 네바다 카운티에 있는 더스틴 프로시타의 집에 지난 4일 밤 7시 30분경 화재가 발생했다.

소방대원들이 현장에 도착해 불길을 진압하는데까지 1시간 30분이 걸렸는데, 소방대원들은 정확한 화재의 원인을 찾지 못했다. 프로시타는 당시 반려견 2마리와 집 안에 있었는데, 무언가 집에 부딪히는 굉음이 들린 뒤 화재가 시작됐다고 말했다. 그리고 사고 당시 현장 주변으로 유성이 떨어지는 것을 목격했다는 증언들이 쏟아졌다. 실제 SNS에는 비슷한 시각 캡처한 하늘에서 밝은 빛이 떨어지는 모습을 담은 영상과 사진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었다.

이 사고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집주인의 반려견 한 마리와 가축 몇 마리가 목숨을 잃었다. 또 화재로 인해 집과 차는 형태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소실됐다.

소방 당국은 “처음에 누군가 (화재 원인으로) 유성이 이야기를 했는데, 당시에는 확신하지 않았다.”면서 “유성을 봤다는 목격자들이 많이 나왔고, 이후 화재의 원인이 운석이나 소행성의 추락이라고 추측했다.”고 전했다.

이어 “인근 주민들은 모두 하늘에서 ‘불타는 공’이 떨어졌다고 말했다. 당시 촬영된 동영상에서도 주민들의 증언과 비슷한 현상이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추락한 드론 열어보았더니

홍콩 중심가 초고가 아파트와 호텔 객실을 대상으로 드론을 날려 불법 음란물을 촬영해온 20대 남성이 경찰에 잡혔다.

지난달 9일 홍콩 경찰은 홍콩 센트럴 인도에 추락한 소형 드론 한 대를 인계받고, 주인을 찾아주고자 내부에 촬영된 영상을 확인하던 중 불법 음란물 영상 20개 이상을 발견했다. 경찰은 해당 드론의 소유자인 26세 남성을 추적, 응 모 씨를 잡고, 거주지 안에 있던 또 다른 드론 4대와 음란물 등을 증거로 압수했다.

경찰은 응 씨가 드론을 구매한 지 일주일째였던 지난달 9일 고화질 카메라를 장착해 아파트 단지와 호



▲ 드론을 날려 불법 음란물을 촬영해온 20대 남성이 경찰에 잡혔다. 사진=shutterstock

텔 객실 등을 중심으로 불법 촬영을 하던 중 조작 실수로 드론을 떨어뜨린 것을 확인했다. 응 씨는 법형 당시 드론을 찾으려 일대에 잠시 모습을 드러냈으나 출동한 경찰을 보고 달아났다. 거주지에 은신해 있다가 붙잡혔다. 응 씨의 아파트에서는 주민들의 사생활과 성관계를 담은 영상과 알몸 차림의 호텔 투숙객들의 영상 등

이 담긴 파일이 발견됐다.

경찰 관계자는 “드론을 날려 불법 영상을 촬영해 적발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사전 동의 없이 불법으로 영상을 촬영하는 행위는 최고 5년 이하의 징역이 부과되는 심각한 범죄”라고 경고했다.

Kyung Sook Yu, D.D.S

개원 20주년 기념 스페셜

최신형
3DCT Pano Can Ceph
설치 기념

Free
임플란트 상담

크라운
(PFM)
\$500

잇몸치료
\$200 부터

틀니
\$1500

각종 보험 PPO / 메디컬 환영

DR. Kyung Sook Yu
USC 치대 졸업



1370 S. Beach Blvd. #E La Habra, CA 90631
T.562.694.5850 월-목 9am - 6pm

● 유경숙 치과
예당식당